

‘거인병’ 농구스타 김영희, 장애인 봉사로 활력 찾아



한국 여자농구가 국제무대에서 가장 명성을 날린 것은 1984년 미국 LA올림픽 때였다. 이후 무려 9번의 올림픽을 치렀지만 한국 여자농구는 LA올림픽에서의 은메달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구기 종목 최초의 올림픽 은메달이었다. 당시만 해도 여자농구는 프로 출범 이전이었지만 겨울 스포츠로서 큰 인기를 차지했다.

한국은 올림픽 예선에서 당시 중공에 참패를 당하면서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됐으나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불참하는 바람에 출전권을 획득하는 행운을 거머쥐었고, 급기야는 대한민국 올림픽 출전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급자탑을 쌓게 되었다. 여자농구는 올림픽 무대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쾌거를 이뤄내 인기몰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농구 대잔치 시절의 한국 여자농구 전성기는 이제 떠나면 나라 이야기만 같이 요원하게 느껴질 뿐이다.

LA올림픽 은메달은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인 박찬숙, 여고생 성정이 등이 버티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거인 센터 김영희, 민원근 박양계 등 멤버가 화려하게 이들을 데웠다.

꽃다운 24살, 병마에 잡혀온 뒤

당시 멤버들은 은퇴 후에도 농구 지도자로서 삶을 보냈지만 2m5cm의 거인 센터인 김영희는 30년 넘게 외로이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무척 안스럽다. 김영희가 속칭 거인병이라는 ‘탈단비대증’ 판정을 받은



**장신센터로 LA올림픽 은메달 획득
30년 넘게 홀로 거인병 투병생활
체육 연금 70만원으로 한 달 연명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병도 앓아
올림픽 전사답게 병마 펼쳐 내길**

건 지금부터 34년 전인 1987년이다. 눈물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결혼도 물론 하지 않았다. 뒷바라지를 해주던 엄마가 1998년, 아버지가 세 차례의 암수술 끝에 2000년 세상을 뜨면서 너무 막막한 탓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김영희가 앓는 탈단비대증은 성장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인해 생기는 병이다. 뼈 성장으로 손발과 안면 등은 물론 허와 같은 연부 조직도 커진다. 김영희는 거인병과 함께 당뇨,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는 등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 주변의 놀림과 우울증 때문에 3~4년 동안 집 밖을 아예 안 나가기도 했다. 우울증세가 심할 때는 바깥 날씨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난방을 아예 안 틀고 문을 열어놓은 채 울었다고도 했다.

팔쪽 뺨이면 달은 ‘코끼리’ 센터
울산에서 태어난 김영희는 어릴 때부터 키가 큰 덕분에 부산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배구 선수로 운동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농구로 종목을 바꾸었고, 동주여자중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장신의 유망주로 주목 받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치열한 스카우트 경쟁 끝에 농구 명문인 서울의 송의여자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송의여고를 졸업한 뒤에는 실업팀 한국화장품에 입단했다. 송의여고 2학년 때 여자농구 국가대표팀에 처음 발탁됐으며, 은퇴할 때까지 대표 선수로 줄곧 활동했다. 체격이 커 ‘코끼리’라는 별명이 붙은 김영희는 키가 워낙 커서 팔을 쪽 펴고 발뒤꿈치만 살짝 들면 3m5cm 높이의



농구스타 김영희.

농구 림에 닿을 정도였다. 그는 당시 농구 대잔치에서 한 경기에 52점을 기록, 여자농구 한 경기 역대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75 리바운드를 기록, 한 경기 역대 최다 리바운드 기록을 세우는 등 그의 전성기는 1980년대 중후반까지였다. 1983~84년 농구대잔치 결승에서 우승을 확정지으며 단신의 박양계가 거인 김영희에게 매달려 마치 거구리와 장다리를 보는 듯했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김영희는 득점, 리바운드 등 5개 부문에서 1위와 함께 MVP를 거머쥐었다. 그는 국내 무대에서는 업계 라이벌인 태평양화학의 1m90cm 장신 센터로 4년 선배인 박찬숙과의 라이벌 대

결로 눈길을 모았으나 국제 대회에서는 느린 스피드 등 몇 가지 단점 때문에 주전으로 많이 뛰지는 못했다.

훈련 도중 반신마비와 실명 위기

거구의 몸을 이끌고 국가대표로 활약하던 김영희가 위기를 맞은 것은 1986년 서울아시안 게임을 뛰고 나서인 1987년 11월이었다. 그의 나이 겨우 24살로 한참 코트를 누빌 때였다. 훈련 도중 반신마비가 오고 눈이 안 보였다. 이전에도 몸이 붙어 소속팀 한국화장품 코칭스태프로부터 울림

에 없었다. 그가 불치의 거인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 아닌 만큼 농구인에게는 알음알음 알려졌고, 2009년 2월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통해 그의 사연이 상세히 방송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부산의 8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그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 수 밖에 없다. 김영희는 LA올림픽 은메달 덕분에 받게 된 체육연금 70만원으로 한 달을 연명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수입원이다. 어떤 때는 보름도 안 지났는데 7000원밖에 안 남을 때도 있어 힘들었다고 최근 유튜브 채널 ‘근황 올림픽’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도움을 손길을 내민 하재, 서장훈 등 농구계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두문불출하며 지냈던 그가 SNS를 통해 외부에 창문을 열고 소통한 셈이다.

장애아동 봉사로 용기와 자신감 얻어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던 그런 그가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집 근처 시설에서의 장애인 봉사였다. 어린 꼬마들이 기어서 무릎 위에 올라와 ‘과자, 과자’ 할 때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고 했다. 그가 겪는 아픔과 우울증은 장애 어린이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봉사를 통해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자신의 심신은 병들어 있지만 낮은 곳으로 임한 결과 정신적인 아픔을 덜어냈다는 것이다. 그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뒤늦게나마 알게 된 만큼 육체도 보다 견디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영희는 비록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지만 올림픽 무대를 누빈 여전사다. 젊은 시절 코트에서 보여줬던 투지와 강인함을 재연해 건강한 몸으로 팬들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

조선왕조의 명나라 사대가 반도사관 정착시켰다



당시 집권세력인 노론에 맞서다가 아버지 영조 임금에 의해 뒤주 속에 갇혀 죽어간 사도세자의 묘지문은 “有明朝鮮國 思悼世子墓地(유명조선국 사도세자 묘지)”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崇禎紀元後百三十五年壬午七月(송정기원 후 133년 임오 7월)”이라는 문구로 끝난다.

서두에 국적을 썼는데 국명 조선(朝鮮) 앞에 유명(有明)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있는 것이 특이하다. 유명조선을 단군·기자·위만조선처럼 ‘명나라 시대에 존재했던 조선 즉 이성계의 조선왕조를 말하는 것이라는 학자도 있으나 마지막 문구 ‘송정기원후(崇禎紀元後)’에 의해 그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송정(崇禎)이란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연호다. 농민반란을 일으켜 서안을 점령하고 국호를 대순(大順)이라 칭한 이자성(李自成)의 군대가 1644년에 자금성을 향해 쳐들어오자 송정제가 목을 매 자결함으로써 276년간 이어온 명나라 사직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1644년은 송정 17년으로 이후 중국에서는 송정이라는 연호가 쓰이지 않았지만

명나라를 지극으로 사대했던 소종화 조선에서는 계속 사용됐다. 당시는 청나라가 상국이였기에 조정의 공식문서에는 청의 연호를 사용했으나 민간에서는 계속 ‘崇禎後’ 연호와 함께 ‘有明朝鮮’이란 국명을 사용했다.

사도세자 묘지문은 사도세자가 죽은 1762년에 작성됐으니 정상적이었다면 당연히 ‘건륭(乾隆) 27년’이라는 청나라 연호가 사용돼야 했다. 그러나 당시 영조 임금의 조선왕실조차 비공식적으로 ‘송정후 133년’이라는 조선에만 있는 특이한 명나라 연호를 사용했던 것이다.

서오능에 있는 장희빈의 묘지석도 유명 조선으로 시작된다.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로 손꼽히는 송강 정철의 이장된 묘지석에도 유명조선이 맨 앞에 새겨져 있다. 이렇듯 16세기 이후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묘비에는 사자의 관직·성명 앞에 ‘유명조선’이 관용구처럼 붙어있다.

유명조선의 의미는 ‘명나라의 조선’ ‘명나라에 속한’ ‘명나라에 있는’ 등으로 해석된다. 이는 조선이 소종화로 명나라에 종속됐음을 나타내는 사대주의적 표현이다. 병자호란 때 조선에게 차욕을 안겨준 오랑캐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죽어서도 뱀속까지 명나라를 자극정성으로 사모했던 소종화 조선왕조는 1392년 개국 이래 장장 오백년 넘게 이



명나라가 하사한 국호 조선은 기자조선을 본받았다는 뜻이었다.

조선왕조 사대부 사대문화주의로 반도사관 등장 단군조선 역사서 허구의 기자조선 탄생계기 제공

어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명나라에게 하사받은 국호 조선은 우리 조상인 단군조선이 아니라 주 무왕이 봉했다는 바로 은나라 출신이 세웠다는 기자조선이었던 것이다

조선 초 삼봉 정도전이 지은 아래 <조선

경국전>에 국호 조선이 정해진 글귀가 있다.

“해동은 국호가 일정하지 않았다. 조선이라고 일컫는 이가 셋 있었으니 단군과 기자와 위만이 바로 그들이다. (중략) 이들은 모두 한 지역을 몰래 차지해 중국의



송강 정철 묘지석.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국호를 세우고 서로를 침탈했다. (중략) 그러나 기자만은 주 무왕의 명령을 받아 조선후(朝鮮侯)에 봉해졌다.

“지금 천자(명 태조)께서 ‘오직 조선이란 칭호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유래가 구원하다.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늘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면, 후손이 길이 창성하리라!’고 명했는데, 아마 주 무왕이 기자에게 명했던 것처럼 천자께서 천하에 명한 것이리라. (중략)

“기자는 무왕에게 흥분을 설명하고 그 뜻을 부연해 8조의 가르침을 지어서 나라 안에서 실시하니, 정치와 교화가 성하게 행해지고 풍속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러므로 조선이란 이름이 천하 후세에 이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제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

었으니, 기자의 선정 또한 당연히 강구해 야 할 것이다.

“아! 명나라 천자의 덕도 주 무왕에게 부끄러울 게 없거니와, 전하의 덕 또한 어찌 기자에게 부끄러울 게 없겠는가. 장차 흥분의 배움과 8조의 가르침이 금일에 다시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처럼 없어져버린 명나라를 향한 조선 왕조 사대부들의 사대문화주의는 반도사관 정착의 계기로 작용했다. 반도사관 정착으로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는 한반도와 만주 일대로 좁혀졌다. 그 결과 역년 2000년이 넘는 단군조선은 두 동강이 났으며, 두 동강난 2000년의 절반은 허구의 기자조선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 전문가 칼럼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